

색채의 혁명, ‘빨주노초파남보’는 어떻게 탄생했나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색의 역사

일렉산드라 로스케 지음, 조원호·조한혁 옮김

“아이작 뉴턴이 17세기 말에 무지개의 수수께끼를 풀어낸 덕분에 예술가들은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무지개의 다양한 색은 빛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주로 어둠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것으로 설명되었는데, 이는 가장 명쾌하게 드러내는 현대적인 개념이자 이미지였다. 무지개의 스펙트럼은 순수하고 단순하면서도 보편적인 순서로 받아들여졌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었으나 주로 반지나 바퀴 또는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특히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때 시작적이고 개념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본문 중에서)

예술가의 팔레트는 개인의 취향은 물론 광범위한 문화적 맥락을 상징한다. 이 말

은 미술사가이자 큐레이터인 일렉산드라 로스케의 견해다. 즉 예술가의 팔레트는 당시에 사용했던 화구의 종류 뿐 아니라 색이 어떻게 준비되고 활용됐는지를 보여 준다는 의미다.

현존하는 초기 화구 상자 가운데, 이집트 비자에르 아메네모페가 사용하던 것이 있다. BC 1427~1401년경으로 추정되는데 우묵한 흙에 파란색 유리 안료, 붉은 황토색 등 모두 다섯 가지 물감이 채워져 있다. 이 화구 상자는 3500년 전 쓰였던 물감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로스케가 발간한 ‘색의 역사’는 세상에 색을 입힌 결정적 순간들을 조망한다. 뉴턴부터 팬톤까지 이르는 시기, 시대를 비추는 거울로서의 색을 들여다본다. 2015년부터 로열 파빌리온과 브라이턴 뮤지엄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특히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 유럽 예술과 건축에 관심이 많다.

먼저, 저자는 ‘빨주노초파남보’에서 ‘클래식 블루’까지에 이르는 색의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언급한대로 뉴턴은 1704년 백색광을 분해해 무지개 스펙트럼을 밝혀냈다. 빨주노초파남보가 탄생한 순간이다. 바이츠로 색채 혁명이 시작됐는데, 당시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던 색이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이후 본격적인 색 연구가 가시화됐다. 처음에는 초보적인 수준이었었는데, 초기 연구자들은 섞을수록 검은색이 되는 물질적인 색조자 구별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대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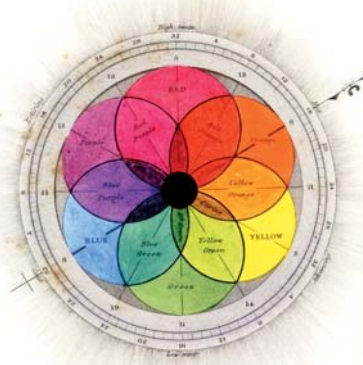


영국 곤충학자 모리스 해리스의 색상환.

르러서는 비물질적인 색(RGB)을 물질적인 색(CMYK)으로 변환해 컬러 인쇄에 활용할 만큼 발전했다. 세계적인 색채 연구소 컬러칩은 색이 3000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2020년 팬톤은 올해의 색으로 클래식 블루를 선정했다. “클래식 블루는 의지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지니고 싶어 하는 우리의 염원에 부응하는 컬러”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인간의 속성과 색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18세기 초반부터는 색상 체계와 다이어그램이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디자인으로 활용됐다. 책에는 색채 연구에 앞장섰던 화학자와 미술가 등이 고안한 다양한 색상환이 실려 있다. 영국의 예술가 로버트 아서 윌슨은 색의 순서를 음악의 하모니와 연관해 생각했다. 초창기 다이어그램에는 삼각형, 다이아몬드, 별모양 외에도 색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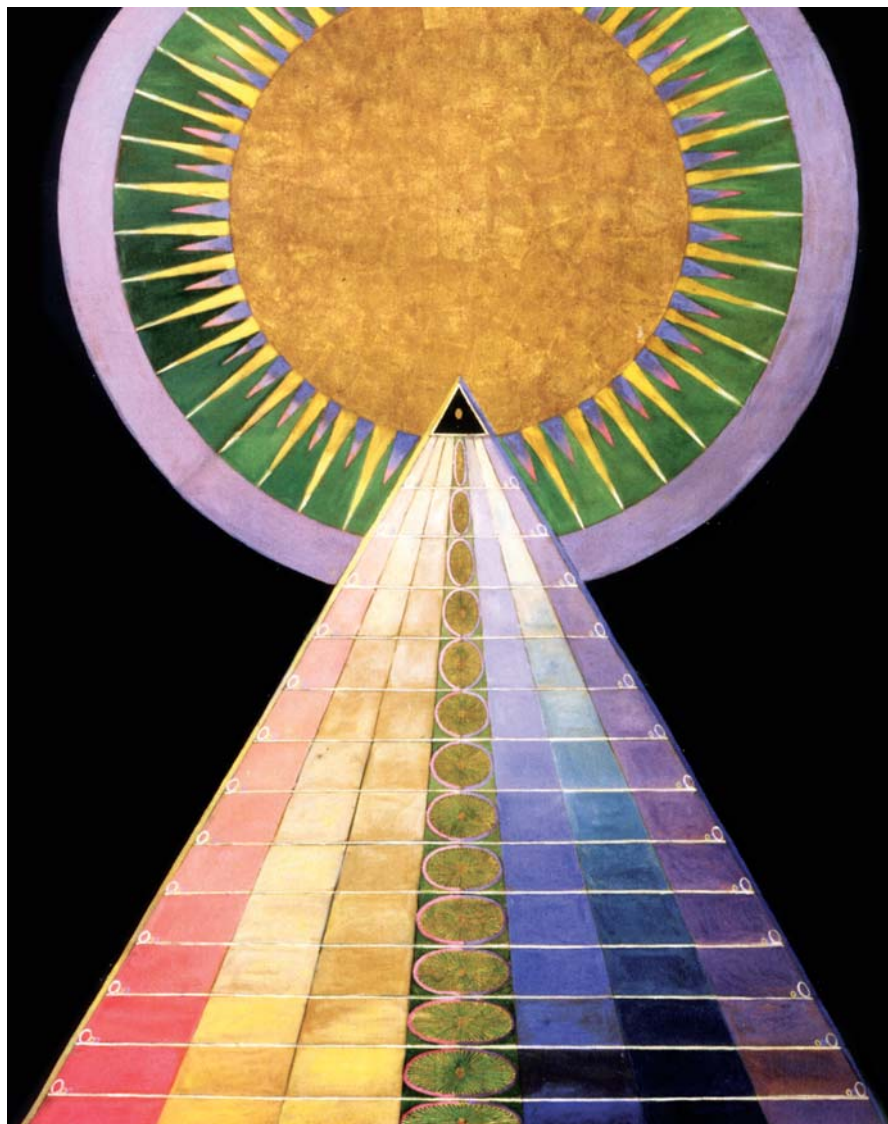
영국 색채 연구가 조지필드의 색상환.

구분, 피라미드 등 실험적 형태가 많았다. “지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사진 인쇄와 대형 실크 스크린 인쇄, 디지털 컬러 시스템까지 나온 상태다. 다양한 이미지를 담은 이러한 인쇄물은 특정한 시기에 색을 사용하고 이해했던 방식을 보여준다.”

책에 실린 원본들은 색에 대한 인류의 열정을 대변한다. 사실 색은 구상과 추상의 어느 경계에 있다. 눈앞에 펼쳐진 실제 이면서 발견해야만 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미의식과 관념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색의 역사를 파헤치는 과정은 세상을 시각화하고자 했던 이들의 노력을 살펴보는 일이다. 이 말은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 있겠다. “색이 지닌 뛰어난 추상성은 이미지에 무한한 보편성을 부여한다”고.

〈미술문화·3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스웨덴 힐마 아프 클린트의 1915년 작품 ‘제단화’는 순수한 색과 명징한 형태가 특징이다. 〈미술문화 제공〉

고전 추리·범죄소설 100선

마틴 에드워즈 지음, 성소희 옮김

셜록 홈즈, 브라운 신부, 제임 마플, 에르퀼 푸아로 등… 이들은 독자들에게 친숙한 잠정들이다. 추리와 범죄소설에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특히 지난 1901~1950년에 출간된 작품은 20세기 전반기를 수놓은 드라마틱한 내용이 적지 않다.

범죄소설 전문가이자 레이크 디스트릭트 미스터리 시리즈로 유명한 마틴 에드워즈가 ‘고전 추리·범죄소설 100선’을 발간했다. 에드워즈는 지난 50년 동안 장르가 발전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까다롭게 작품을 골랐다. 아서 코난 도일의 ‘메스커빌의 사냥개’를 시작으로 흥미는 물론 문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을 모았다.

소설은 밀실 살인, 대저택이나 휴가지에서 생긴 사건, 과학 수사 등 호기심 있는 주제를 망라한다. 작품의 상당수는 기존에 출간됐던 선집 등에 실린 것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소설도 포함돼 있다. 고전 범죄 소설을 즐기는 이들이라면 새 작품을 발견하는 일이 매우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작품 외에도 명탐정들이 나오는 소설은 애거사 크리스티의 ‘스타일즈 저택의 과사건’, 필립 맥도널드의 ‘줄’, 앤서니 버클리의 ‘독 초콜릿 사건’, 마저리 앨링엄의 ‘작고한 피그 사건’, 프랜시스 더브리지와 존 듀스의 ‘폴템폴을 불러오라’ 등이 있다.

이밖에 대저택 살인사건을 다룬 작품으로는 빅터 L. 화이트처치의 ‘다이나나 웡덩이의 범죄’, 에델 리나 화이트의 ‘누군가는 지켜봐야 한다’, 로밀리 존과 게서린 존의 ‘의뢰받은 죽음’ 등을 만날 수 있다.

〈시그마북스·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홉스

엘로이시어스 마티니치 지음, 진석용 옮김

토마스 홉스(1588~1679)를 수식하는 말은 많다. 사회계약론자, 정치철학자, 수학자, 유물론자 외에도 르네 데카르트, 로버트 보일, 존 윌리스 같은 당대 천재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지식 세계의 악동’으로도 평가받는다. 미 텍사스대학 철학과 교수이자 홉스 철학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엘로이시어스 마티니치가 ‘홉스’를 발간했다. 홉스의 일생을 완벽하게 되살려내기 위해, 저자는 가능한 자료를 섭렵해 홉스의 삶과 철학을 복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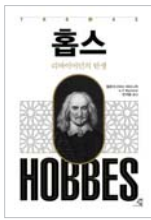
90여 년의 생애 동안 홉스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의 삶은 전쟁과 혁명으로 가득했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공포는 그를 운명처럼 따라다녔다. 청교도 혁명으로 내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641년 찰스 1세에 반대하는 의회세력을 피해 프랑스로 망명했던 그는, 그곳에서 대작 ‘리바이던’을 썼다.

다른 어떤 수사보다 홉스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씨앗을 뿌린 문제적 철학자’로 불린다. 그의 주장 중 일반에게 많이 알려진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만인이 만인에 대해 누대인’ 자연 상태를 만인의 자발적인 사회 계약으로 극복한다는 이념을 통해 근대 인권 주권과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

홉스의 대표작 ‘리바이던’은 사회계약론에 관한 최초의 문헌으로 근대 국가 형성에 토대를 제공했다. 그의 정치철학을 완결하는 작품이자 오늘날에도 인용되고 읽히는 고전이다. 책의 핵심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비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절대 권력을 가진 주권자가 필요하다는 요지다. 그는 인민 주권의 양도와 승인을 통해 국가가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민주적 상형식 관점을 취했다.

〈교양인·2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로의 일기

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음, 윤규상 옮김

“자연이 주는 기쁨은 인간의 통치와 정의에 지배받지 않는다.” 미국의 생태주의 철학자이자 사상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써내려간 일기가 책으로 나왔다.

‘소로의 일기 : 전성기엔 자연의 기쁨을 삶에 들어는 법’이 그것. 책은 그가 남긴 14권의 일기 중 제4~7권의 일부로, 20~34세까지 젊은 날의 사색을 담은 ‘소로의 일기: 청년 편’에 이은 두 번째 책이다.

30대 중반, 소로의 삶은 위대한 작가에게서 기대되는 화려함과 거리가 멀었다. 첫 책 ‘소로우의 강’이 크게 실패해 빚더미로 돌아온 책 수백 권을 떠안았고, 맺어온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깊이 교유해 왔던 초월주의자 그룹과 갈등하며 고독함을 느끼던 시기였다.

“우리는 길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둘러싼 관계망이 무궁함을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일기 속 고백처럼, 소로는 여러 실패와 좌절, 갈등이라는 이 생의 ‘길 잃음’을 기회이자 통로 삼는다.

소로는 소박한 삶을 꾸리는 콩코드 마을 사람들, 주변을 노니는 네발짐승과 때를 맞춰 오가는 철새들, 울음소리로 계절을 일깨우는 풀벌레들, 첫 꽃을 피우는 여러 꽃나무와 겨울에도 지지 않는 상록수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과, 세계 속 자신의 자리를 찾는다.

소로는 콩코드 지역의 동물과 식물, 기후에 대한 관찰에 몰두했고, 계절의 순환과, 잎과 열매가 익어가는 모습 같은 자연 현상에 대한 묘사에 집중한다. 그 소박함에서 오는 기쁨을 만끽하며 자신의 삶과 생각을 담담하게 기록한다.

〈갈라파고스·1만65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